

화학기업, 현금 회수기간 단축

2010년 60.2일에서 2011년 58.9일로 ... 섬유는 10.9일 늘어

12월 결산 상장 제조기업의 평균 현금회수 기간이 2일 가까이 늘어나 현금회전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기업협의회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법인 435사 중 비교가 가능한 415사를 대상으로

상장 제조기업의 현금회수기간

(단위: 일, %)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감	증감률
의료정밀	121.1	117.4	-3.7	▽3.05
철강금속	83.5	81.4	-2.1	▽2.33
종이목재	84.7	82.8	-1.9	▽2.33
화 학	60.2	58.9	-1.3	▽2.13
의약품	145.8	144.8	-0.9	▽0.62
전기전자	41.6	42.6	1.0	2.36
비금속	96.9	107.1	10.2	10.50
운송장비	25.9	28.8	2.9	10.98
섬유의복	92.3	103.2	10.9	11.80
음식료품	48.2	57.5	9.3	19.23
기 계	53.1	63.5	10.4	19.57
평 균	77.6	80.7	3.1	4.05

2011회계연도의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현금회수 기간이 52.6일로 조사됐다고 4월18일 발표했다.

2010년의 50.8일보다 1.8일이 늘어난 것이다.

현금회수 기간은 원재료 구입을 위한 현금 투입에서 판매에 따른 현금 회수까지의 시간적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보유기간 + 매출채권 회수기간 - 매입채무지급기간>으로 계산한다.

현금회수 기간의 증가는 제조기업의 이자비용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학은 회수기간이 2010년 60.2일에서 2011년 58.9일로 오히려 1.3일 단축됐고, 의약품도 145.8일

에서 144.8일로 0.9일 단축됐다.

상장기업협의회는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 중심의 수출 호조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났지만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늘어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현금회전이 다소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20>